

## 북미주 사제단 미사 보험

서울 대교구 소속 북미주 사제단 연례회의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필라델피아 휠리엔젤스 한인 성당(주임 정대웅 요한보스코 신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서울 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과 24명의 신부가 참석해 해외 사목지에서 겪었던 체험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유하며 함께 공동체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사제들은 신자들이 이민생활이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교회 안에서 표출하며 냉담하는 신자들도 있지만 사제들은 그들이 신앙 안에서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매 순간 감사와 기쁨에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남미에서 선교활동하는 신부들은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충도 많지만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영적으로 채워주는 기쁨과 보람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이어 염 추기경과 24명의 사제들은 25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화) 오후 7시 30분 미사를 공동 집전했다. 사제단을 대표한 만형 김종욱 미카엘(워싱톤 한인 천주교회 주임) 신부는 이날 강론에서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소금의 본질은 짠 맛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된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모습을 들어다 보는 자세가 없으면 조금씩, 조금씩 퇴색되고 변질되어 어느 사이에 짠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된다”며 “예수님 마음과 진심을 공감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된다. 우리 모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24명의 신부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신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김근희 베드로 사목회장은 “주님의 사랑과 힘, 용기를 주시려고 먼 곳까지 찾아오신 추기경님과 추기경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만나러 오신 신부님들의 특별한 모임을 우리 성당에서 두 번이나 갖게 된 것은 하느님의 큰 축복이고 기쁨이다. 본당 주임 신부님이 오랫동안 비자가 나오지 않아 공석 중인데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제들을 보내 주신 것은 분명 그분의 뜻 안에서 계획된 일”이라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인사말을 통해 “파티마에서 3명의 어린 목동들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신지가 올해로 101주년이 되었고 평양교구가 설립된지 90주년이 되었다. 성모님은 5월부터 10월 13일까지 6번을 매월 13일에 발현하시어 그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 메세지를 전달 하셨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한 필라델피아 세계 가정대회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켜 주었다. 가족간의 단절된 대화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선 그날로 서로 화해하고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라는 말들을 내일로 미뤄선 안된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먼 인생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 주신다. 이민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고생도 많고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럴수록 공동체가 서로 아끼고 더욱 일치하여 시련을 딛고 일어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사제단은 3박 4일 동안 추기경과 개별 면담, 미사집전, 회의, 친교, 관광 등으로 일정을 마쳤다. 내년 사제단 연례회의는 워싱톤 한인 천주교회(메릴랜드주 Olney 소재)에서 열린다.

양경숙 바刹